

# 與 수뇌부도 '강만수 경제팀' 교체론 들먹

야당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의 교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경제수장 교체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외화유동성 확보방안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환율 및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의 잇따른 행보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다음 각료 개편이 있다면 경제관료만큼은 정권에 상관없는 옛날의 이현재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와서 국민을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현재씨가 경제부총리 할 때

잇따른 경제위기 대책 불구 시장 불신 해소 못해

홍준표 대표 "카리스마 있는 분이 경제 수장 돼야"

가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이분이 목직하게 정책을 묵묵히 이끌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공이 매우 컸다"면서 "MB 경제철학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경제수장이 되면 모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일부에서도 (경제팀 교체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교체는 만약 이 시점에서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한 달 이상 기획재정부장관의

공백상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돼 공황적 상황이 가라앉았다면 강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은 발언으로 분석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레벨에서 하지 말고 격상시켜서 총리 레벨에서 경제 위기 대응을 주재하는 게 위기 극복에 빠르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대책회의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경제팀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 나온 발언

이어서 '강만수 장관 레벨에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제기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당 지도부 내에 이 같은 공감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사실상 강만수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감이 여론에도 널리 퍼져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경제팀 교체 등 연 말 개각과 관련,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팀 교체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교체 불가피론'과 '교체 불가론'이 백중세"라고 말했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신뢰의 위기라고 하는 데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사들로 경제팀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위기감을 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북핵문제, 中 중재 역할 컸다”

“6자회담 성공 확산...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진력해야”

### DJ '동북아 포럼' 기조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일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6자회담의 성공을 확신했다.



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국의 태도변화를 꼽았지만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선양을 방문 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선양의 라오닝 우의빈관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발전포럼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를 주제로 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간 6자회담은 무엇보다 중국의 인내심에 찬 노력과 현명한 리더십의 발휘로 한발 한발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1, 2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앞으로 북핵검증이라는 3단계만 남은 6자회담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잘 진전돼왔던 북미관계를 일거에 대립국면으로 전환시켰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저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직접 대화와 주고받기식 협상 원칙을 수용했다"며 "그러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을 구성한 것은 늦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의 진전을 가져온 주된 이유로 중국의 중재노력과 함

그는 6자회담의 향후 과제로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성을 성공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하면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고 남북관계도 많이 개선될 뿐 아니라 중국도 안심하고 내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북3성과 한반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협력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인구면에 있어서나 세계와의 무역량에 있어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장을 내다볼수록 동북아의 평화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과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 등 극단적 우경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일본이 독일의 예에서 교훈을 찾아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인접국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걱정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與野 '수정 예산안' 편성 공방

### 野 "대목 손질" 與 "소폭 그쳐야"

여야가 27일 정부 예산안의 수정 편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야기한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대폭적인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심의과정에서 다소의 손질만 가하면 족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09년도 예산안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노무현 정권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6.5% 증가)을 기록해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 엇비슷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5%로 보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3%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2.9%까지 전망하는 기관도 생겨났다"며 "정부에서도 예산안 마련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심의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비쳤다.

반면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지금은 주가가 3분의 1이 증발하고 내수나 수출 모두 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어 정부가 예산안 썼을 때와 경제사정이 엄청나게 변했다"며 "국민에게 부끄럽게지만 수정 예산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 위기에 처할 때는 감세를 해줘도 기업은 위협해서 투자를 안한다"며 "결국 물가는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속화시키는 예산편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국민 모독 유인촌 장관 해임하라”

민주 문방위원 8명, YTN 구본홍 사장 사퇴도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27일 이른바 '국정감사장 막달 논란' 등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과 신 차관이 보여준 국회와 국민 무시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 모독, 국민 무시의 축소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유 장관과 신 차

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인사권을 무기로 맹목적인 총성만을 강요해 언론을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YTN 구본홍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동료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고 유인촌 장관은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유 장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盧 전대통령, 전남서 환경 벤치마킹

29일부터 순천·담양·화순 잇단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순천, 담양, 화순 등 전남지역을 잇따라 방문한다.

27일 정처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9일 순천만 생태공원과 대대포구를 둘러본 뒤 오찬을 갖고 오후에는 용산 전망대로 산행에 나선다.

이어 31일에는 담양에 위치한 모수목원을 방문한 뒤 봉하 마을로 돌아간다. 이번 방문에는 이병완·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금원 참신섬유 회장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전남 지역 방문은 봉



하 마을 인근의 봉화산 숲 가꾸기, 화포천 습지 보호 등을 위해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천만 습지 생태공원 및 담양지역 수목원 등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봉화 마을 인근 지역의 환경 보호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처권 관계자는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환경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높은 관심 때문"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의 모임은 가급적 갖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립중앙도서관

# 시/승리야 시대의 리더

1930년대부터 2차대전까지 이르는 기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주최하는 '신규사업추진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사업추진 토론회'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동료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고 유인촌 장관은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유 장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